

신선농산물 동남아시아 시장 수출조사

- 태국 단감 -

2020. 01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목 차]

I. 국내 시장동향	93
1. 생산현황	93
2. 유통현황	102
3. 소비현황	105
4. 수출현황	107
II. 태국 시장동향	111
1. 생산현황	111
2. 유통현황	113
3. 소비현황	121
4. 수입현황	123
III. 시장현황비교분석	130
1. 시장현황비교	130
2. 수출국 시장분석	131
IV. 시장확대방안	133
1. 품목유망성	133
2. 시장확대방안	134

I. 국내 시장동향

1. 생산현황

1) 재배품종

□ 단감은 생리적 특성에 따라 △완전 단감과 △불완전 단감으로 분류됨

- 완전 단감은 성숙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떫은맛이 사라지며 과육색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대표적인 품종으로는 부유, 차랑, 상서조생, 조완, 로망, 연수, 감풍 등이 있음
- 불완전 단감은 완전히 성숙할 때까지 과육 내 타닌 성분이 남아있어 떫은맛이 나며, 과육의 색이 갈색으로 변화하거나 반점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임
 - 감백목, 서촌조생, 선사환, 조홍시 등이 대표적인 불완전 단감 품종임

□ 국내에서 재배되는 단감 품종은 대부분 부유로, 편중 재배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국산 품종이 개발되고 있음

- 2019년 기준 부유는 국내 단감 재배면적의 83% 이상을 차지하여 재배가 편중되는 현상을 보임¹⁾
 - 부유는 차랑과 함께 일본에서 도입된 대표적인 단감 품종으로, 1960년대부터 상업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함
 - 국내에 단감 품종이 도입되기 전에는 야산에서 자생하는 감 또는 일반 가정 마당에서 볼 수 있는 떫은 감이 대부분으로, 생과 대신 주로 홍시나 꽃감의 형태로 섭취하였음
 - 부유 도입 후 단감 소비가 증가하며 재배가 확대되었고, 이후 편중 재배가 이어져 오고 있음
 - 묘목을 새로 심을 경우 3년 이상이 경과해야 착과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고접 갱신기술²⁾을 적용하여 부유 재배편중 현상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단일 품종의 편중 재배로 발생하는 공급 과잉과 가격 불안정 등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국내 단감 품종이 육성되고 있음
 - 농촌진흥청에서는 국산 품종의 보급률 확대와 수입 품종 대체를 위해 2019년 기준 6개의 국내 단감 품종을 보급하고 있음
 - 수확기를 기준으로 조완(9월 하순), 원미·원추(10월 상순), 로망·연수(10월 중순), 감풍(10월 하순) 등이 보급되고 있음

1) 농촌진흥청 보도자료(2019.02.27.)

2) 품종 고접갱신은 기존의 단감나무 높은 부위에 다른 품종을 접목시켜 갱신하는 방법을 일컫음

〈표 1-1-1〉 단감 주요 품종별 특징

품종	사진	주요 특징
부유		· 과실 크기는 200~220g이며, 당도는 15~16° Bx 수준임 · 10월 하순에서 11월 상순 사이에 수확함 · 전체 수확량의 15~20% 정도가 저온저장 후 출하됨
차랑		· 과실 크기가 230g 정도로 대과종에 속하며, 당도는 16° Bx임 · 숙기는 10월 하순에서 11월 상순임
서촌조생		· 과실 크기는 180~200g이며, 당도는 15° Bx 내외임 · 9월 중·하순에 수확하는 조생종으로, 수분수로 활용하거나 추석용으로 수확함
조완		· 과중은 220g 정도이며 당도는 16.4° Bx 수준으로 식미가 우수함 · 조생종, 특히 서촌조생의 대체용으로 육종되어 9월 중·하순경에 수확함
로망		· 수출용 완전단감 품종으로, 과중 185g 내외의 중과종이며 당도 18.6° Bx의 고당도 품종임 · 숙기는 10월 중순으로, 상온 저장력은 20일 정도로 중간 정도임
연수		· 235g 내외의 중과종으로 평균당도 17.0° Bx 의 고당도 품종임 · 과즙이 풍부하고 껍질이 얇고 부드러워 껍질째 섭취 가능함 · 만개기는 부유 품종보다 2일 정도 빠르며, 숙기는 10월 중·하순임
감풍		· 과중은 417g이며 당도는 약 15° Bx임 · 과실 표면의 열과(열매터짐)나 꼭지들림 등 생리장해 발생이 적은 편임 · 부유의 대체품종으로 개발되었으며, 부유보다 10일 정도 이른 10월 하순께 수확함

* 출처: 농촌진흥청 농사로 농업기술포털>농자재>품종정보(<http://nongsaro.go.kr/>)

2) 생산동향

가. 생산량 추이

□ 2018년 국내 단감 생산량은 10만 4,362톤으로 전년대비 8.7% 감소함

- 최근 10년간 국내 단감 생산량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주로 기상재해로 인해 생산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2009년 단감 생산량은 11월 상순에 발생한 이른 한파로 동해피해가 발생하면서 생산량이 전년대비 20.5%가량 감소함
 - 2016년에는 수확기 강우 피해로 꼭지들림³⁾ 현상이 발생해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며, 2017년에는 생육기 가뭄으로 생산량 감소세가 이어짐
- 2018년에는 생육기 가뭄 및 폭염과 더불어 단감 주 재배지인 경남과 전남지역에서 일소⁴⁾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생산량이 감소함
 - 이와 더불어 동년 4월 발생한 저온피해로 경남 일부 지역에서 단감 과수의 수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착과수가 줄어든 것 또한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미침

〈표 I -1-2〉 2009~2018년 국내 단감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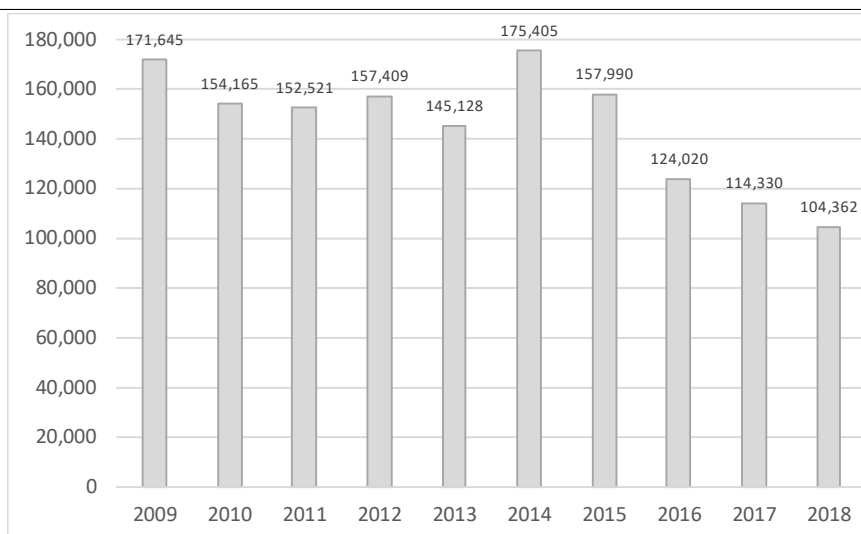
(단위 : 톤)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71,645	154,165	152,521	157,409	145,128	175,405	157,990	124,020	114,330	104,362

* 출처 : 통계청>국가통계포털>국내통계>주제별통계>농림어업(<http://kostat.go.kr/>)

〈그림 I -1-1〉 2009~2018년 국내 단감 생산량 추이

(단위 : 톤)



- 3) 과실이 비대해지는 과정에서 꼭지의 꽃받침과 과실 사이 접합부에 틈이 발생하여 빗물 유입 또는 병균 침입으로 과실이 병들게 됨. 이러한 경우 과실이 물러지거나 부패하여 상품성과 저장성을 상실함
- 4) 강한 태양광선으로 인해 과실 표면의 색이 회갈색으로 변색되는 것을 의미함

□ 2018년 국내 단감의 주 재배지는 경상남도과 전라남도로, 전국 생산량의 89.3%를 차지함

- 경상남도의 단감 생산량은 6만 3,782톤, 전라남도의 생산량은 2만 9,419톤으로 집계됨
 - 경남은 전국 단감 생산량의 6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남은 28.2%를 차지함
 - 두 지역 모두 생산량은 전년대비 각각 7.5%와 12.4%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8년도 가뭄 및 폭염과 더불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일소 피해로 생산량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됨
- 이 외에도 경상북도 4,948톤(4.7%), 울산광역시 2,793톤(2.7%) 등 단감이 생산되고 있으나 그 비중은 크지 않음

〈표 1-1-3〉 2018년 지역별 단감 생산량

(단위 : 톤, 톤, %, %)

순위	지역	2017년 생산량	2018년 생산량	비중(2018)	YoY
	전국	114,330	104,362	100.0	△8.7
1	경상남도	68,933	63,782	61.1	△7.5
2	전라남도	33,574	29,419	28.2	△12.4
3	경상북도	5,360	4,948	4.7	△7.7
4	울산광역시	2,726	2,793	2.7	2.5
5	광주광역시	1,456	1,088	1.0	△25.3
6	전라북도	753	1,080	1.0	43.4
7	제주도	753	660	0.6	△12.4
8	부산광역시	247	245	0.2	△0.8
9	충청남도	372	244	0.2	△34.4
10	대구광역시	39	42	0.04	7.7
11	대전광역시	28	30	0.03	7.1
12	경기도	36	27	0.03	△25.0
13	강원도	30	4	0.004	△86.7
14	서울특별시	-	-	-	-
15	인천광역시	-	-	-	-
16	세종특별자치시	1	-	-	-
17	충청북도	22	-	-	-

* 출처 : 통계청>국가통계포털>국내통계>주제별통계>농림어업(<http://kostat.go.kr/>)

나. 생산지역 및 면적

□ 2018년 국내 단감 재배면적은 9,108ha로, 전년대비 5.0% 감소함

- 국내 단감 재배면적은 농가의 노동력 부족 및 소비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인해 꾸준한 감소 추세에 있음
- 농가 고령화 등에 따른 폐원 등으로 인해 국내 단감 재배면적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표 I -1-4〉 2009~2018년 국내 단감 재배면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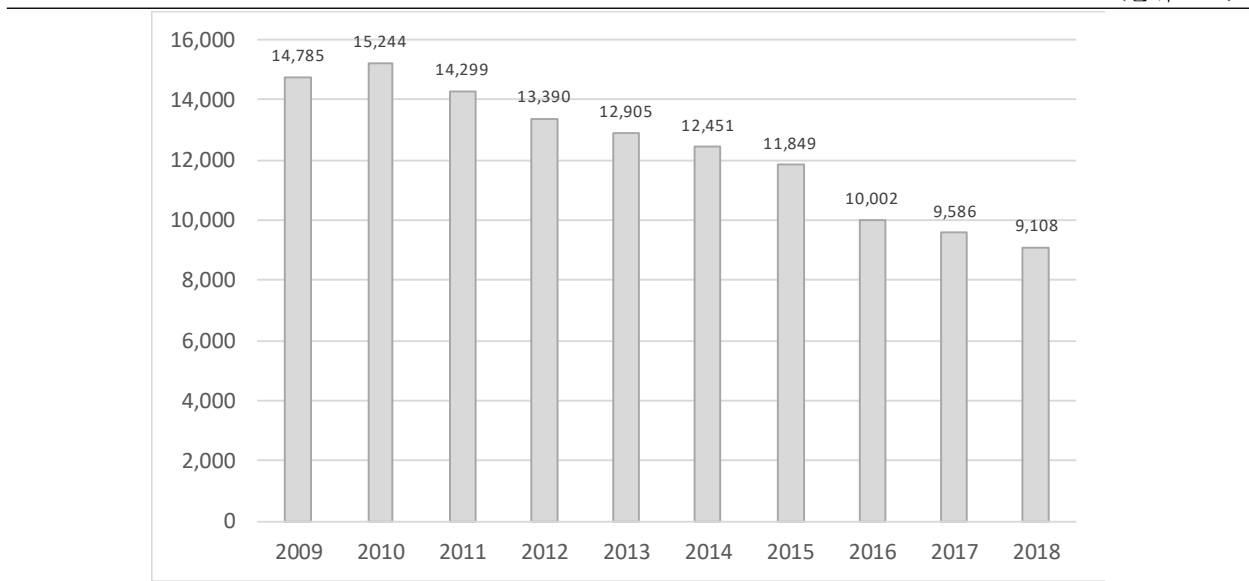
(단위 : ha)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4,785	15,244	14,299	13,390	12,905	12,451	11,849	10,002	9,586	9,108

* 출처 : 통계청>국가통계포털>국내통계>주제별통계>농림어업(<http://kostat.go.kr/>)

〈그림 I -1-2〉 2009~2018년 국내 단감 재배면적 추이

(단위 : ha)



□ 2018년 단감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은 경상남도과 전라남도로, 전국 단감 재배면적의 85.8%를 차지함

- 경상남도의 단감 재배면적은 5,150ha로 전국의 56.5%를 차지함
- 이는 전년대비 4.1% 감소한 수준으로, 2018년도 해당 지역의 단수는 1,239kg으로 집계됨
- 단감은 연평균 12℃ 이상에서 재배되는 난온대성 과실로, 경남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고 초상(첫 서리)이 늦어 입지적으로 단감 재배에 유리함

- 전라남도의 단감 재배면적은 전국의 29.3%에 해당하는 2,673kg로 해당 지역의 재배면적 역시 전년대비 8.7% 감소함
- 단수는 경상남도보다 조금 낮아 10a당 1,100kg의 단감이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남
- 해당 지역 역시 단감 재배에 적합한 기후조건을 갖추었지만,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산간지역이 적고 참다래 등 단감을 대체하는 작물이 재배되고 있어 경남보다는 면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1-1-5〉 2018년 지역별 단감 재배면적

(단위 : ha, ha, %, kg, %)

순위	지역	2017년 재배면적	2018년 재배면적	비중('18)	단수('18)	YoY
	전국	9,586	9,108	100.0	1,146	△5.0
1	경상남도	5,371	5,150	56.5	1,239	△4.1
2	전라남도	2,928	2,673	29.3	1,100	△8.7
3	경상북도	554	556	6.1	890	0.4
4	울산광역시	242	242	2.7	1,154	0.0
5	제주도	95	144	1.6	458	51.6
6	광주광역시	176	141	1.5	769	△19.9
7	전라북도	114	115	1.3	938	0.9
8	충청남도	46	43	0.5	568	△6.5
9	부산광역시	30	28	0.3	881	△6.7
10	경기도	6	6	0.06	456	0.0
11	대전광역시	4	5	0.05	654	25.0
12	대구광역시	3	4	0.04	1,167	33.3
13	강원도	6	1	0.01	357	△83.3
14	서울특별시	-	-	-	-	-
15	인천광역시	-	-	-	-	-
16	세종특별자치시	8	-	-	-	-
17	충청북도	3	-	-	-	-

* 출처 : 통계청>국가통계포털>국내통계>주제별통계>농림어업(<http://kostat.go.kr/>)

다. 작기 및 출하기

□ 단감은 3월에서 11월까지 생장 및 성숙하는데, 휴면기를 거치며 이러한 과정이 매년 반복됨

- 단감은 2월 하순 경 휴면기가 완료되며 생육 및 성숙기를 거친 후 11월 하순부터 낙엽과 동시에 휴면기가 시작됨
- 3월 하순부터 발아가 시작되면 잎이 전개되고, 5월 중·하순부터는 개화가 시작됨
- 개화와 수정이 완료되면 과실이 비대해지기 시작하며, 9월 이후부터 성숙 때까지는 착색과 함께 가장 많이 비대해짐
- 개화 후 성숙기까지 과실 크기는 약 60배 정도 비대해짐

- 조생종의 경우 생육을 위해서는 190~220일 이상이 필요하며, 부유 등 만생종은 230~250일이 필요함
- 묘목을 심은 후 3년 이상이 지나야 과실이 달리기 시작하며, 40년 경과 후에는 과수가 노쇠하여 생산량이 줄어들고 단감의 품질이 낮아짐

〈표 I -1-6〉 단감 재배력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생육기	휴면기	-	발아기 전엽기	개 화 기	생리적 낙과기	화아 분화기	-	착색기 성숙기	-	-	-	휴면기
재배 관리	정지, 전정		-	적외	적 과	하계 전정	-				정지, 전정	
				관수, 배수, 제초								
시비	밑거름 주기		-	여름 거름주기		-	가을 거름 주기		-	-	말거름 주기	

* 출처 : 창원단감테마공원(culture.changwon.go.kr)

□ 단감은 보통 9월 하순에서 11월 중·하순 사이에 수확함

- 품종별로 수확시기가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첫 서리가 내리기 전에 수확을 완료함
 - 단감은 수확시기에 크기가 급격하게 비대해지거나 착색이 진행되기 때문에 수확 시기를 적절하게 판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색, 당도, 크기, 과육경도 등에 따라 수확 여부를 결정함
- 9월 중·하순에 조생종 단감 수확을 시작으로 11월 중·하순 만생종 수확까지 이어짐
 - 국내 단감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유는 만생종으로, 수확기가 늦어지면 서리나 동해 피해가 자주 발생함

〈표 I -1-7〉 품종별 단감 수확기

구분	9월			10월			11월			주요 품종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조생종										서촌조생
중생종										상서조생
만생종										부유, 차랑

* 출처: 농촌진흥청 농사로 농업기술포털>영농기술>작목기술정보(http://nongsaro.go.kr/)

라. 생산규격 및 안전성

□ 국내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신선 단감은 크기, 선택, 속도, 결점과 등에 따라 특, 상, 보통으로 구분됨

- 특 등급 단감은 날개의 크기가 고르며, 속도가 균일하고 결점이 없어야 함
- 뒤이어 크기 차이와 착색비율, 속도, 결점 정도에 따라 상, 보통 등급으로 구분되며 자세한 사항은 하기와 같이 규정됨

〈표 I-1-8〉 국내 단감 표준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① 날개의 고르기	하기 크기 구분표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다.	하기 크기 구분표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다.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선택	착색비율이 80% 이상인 것	착색비율이 60% 이상인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속도	속도가 양호하고 균일한 것	속도가 양호하고 균일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중결점과	없는 것	없는 것	부패·변질과를 제외하고 5% 이하인 것
⑤ 경결점과	3% 이하인 것	5%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표준규격(www.law.go.kr/행정규칙/농산물표준규격)

- 단감의 크기는 3L에서 3S까지 7가지 등급으로 구분됨
- 가장 작은 3S 크기와 가장 큰 3L 크기는 중량이 약 2배 차이가 남

〈표 I-1-9〉 국내 유통되는 단감 크기 구분

						(단위 : g/개)
3S	2S	S	M	L	2L	3L
150 미만	150 이상~ 167 미만	167 이상~ 188 미만	188 이상~ 214 미만	214 이상~ 250 미만	25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표준규격(www.law.go.kr/행정규칙/농산물표준규격)

□ 단감 재배 시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준수해야 하며,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할 수 없음

- 2019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에 따라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이 일률기준(0.01ppm)으로 적용됨
 -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산물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기준 이하의 농약만 사용되어야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음
- 단감 재배 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제품은 2018년 12월 기준 약 819개가 확인됨
 - 재배 시 사용이 제한된 농약성분으로는 프로사이미돈(21.4), 이피엔(7.1), 피페로닐부톡사이드(7.1) 등이 있음
 - 단감 재배 시 사용 가능한 등록농약 정보는 하기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함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nongsaro.go.kr)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약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pis.rd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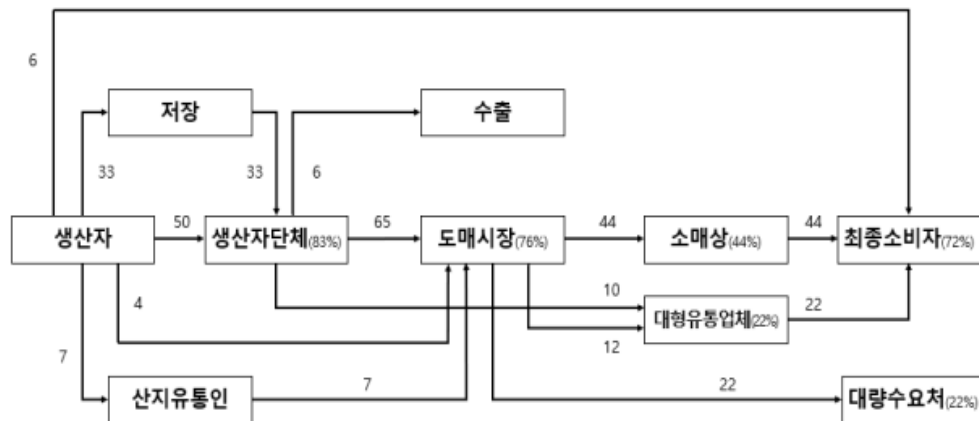
2. 유통현황

1) 유통구조

□ 국내에서 생산된 단감은 크게 《생산자단체 → 도매시장 → 소매상 → 소비자》의 경로로 유통됨

- 단감 출하량 중 83%는 지역농협 등 생산자단체로 유통됨
 - 산지유통인의 활동은 미미한 편이며,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출하된 단감 물량의 33%는 저장과정을 거친 후 생산자단체로 유통됨
 - 생산자단체로 출하된 단감은 도매시장을 거쳐 소매상이나 대형유통업체를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도달됨

〈그림 I -2-1〉 국내 단감 유통경로(2016년)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www.at.or.kr)(2016)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연중공급을 위해 단감은 저장과정을 거치며, 상품성 및 시장가격에 따라 저장 비율과 저장량이 조정됨
 - 10월 초에서 11월 말 사이에 수확한 단감을 저장하여 보통 다음해 4월 초까지 출하함
 - 저장 방법에 따라 최소 1주에서 최대 5개월까지 저장이 가능함

저장 방법	상온 저장	저온 저장	포장 후 저온 저장
저장 기간	1주	4주	3~5개월

-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생산자는 지역농협 등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약물량을 출하하여 손실을 보전하거나 단감을 저장출하하여 가격하락에 대응함

2) 도 · 소매가격

□ 2018년 단감의 평균 도매가격은 상품(上品) 기준 1kg 당 3,155원으로 전년대비 17.5% 상승함

- 동년 국내 단감 생산량은 전년보다 8.7%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단감 출하량 또한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됨
- 단감의 평균 도매가격은 1년 중 2~3월에 가장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출하량 감소 및 구정 제수용 단감의 물량확보를 이유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단감은 일반적으로 설 대목 출하를 위해 10월 하순 또는 11월 상순부터 저장이 시작됨

〈표 1-2-1〉 2014~2018년 단감 도매가격 월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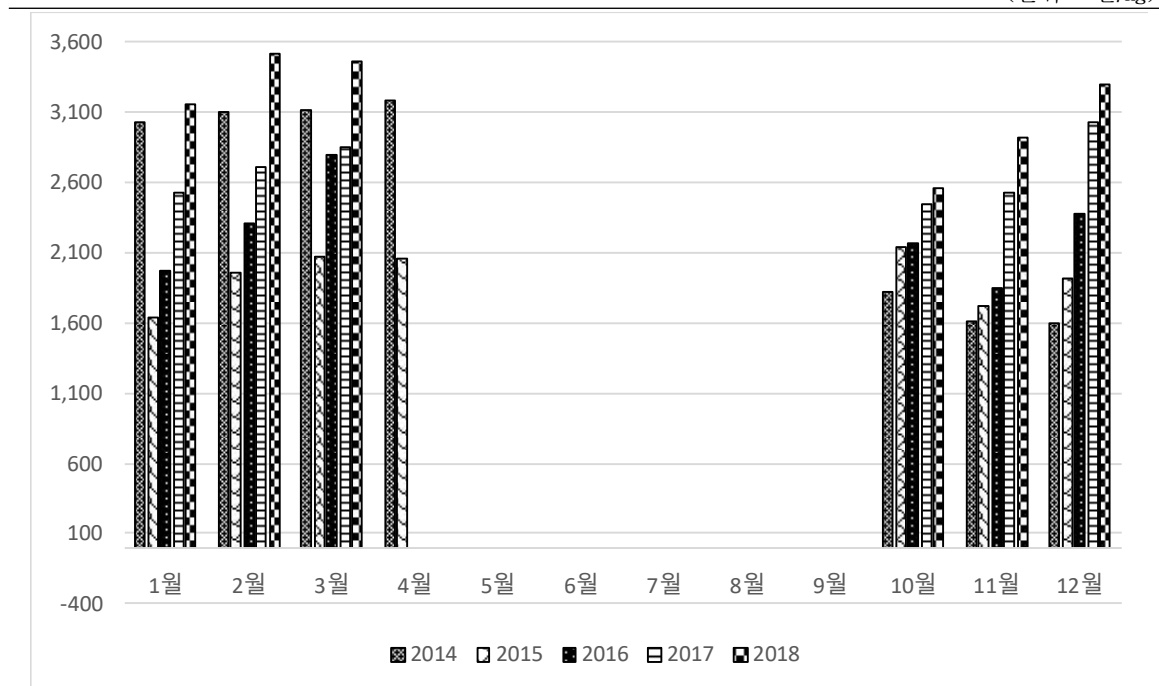
(단위 : 원/kg)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2014	3,026	3,105	3,113	3,187	-	-	-	-	-	1,821	1,615	1,603	2,475
2015	1,632	1,963	2,069	2,052	-	-	-	-	-	2,141	1,726	1,911	1,905
2016	1,967	2,302	2,794	-	-	-	-	-	-	2,170	1,843	2,382	2,252
2017	2,527	2,712	2,846	-	-	-	-	-	-	2,446	2,530	3,025	2,684
2018	3,156	3,520	3,459	-	-	-	-	-	-	2,551	2,914	3,294	3,155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www.kamis.or.kr)

〈그림 1-2-2〉 2014~2018년 단감 도매가격 월별 추이

(단위 : 원/kg)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www.kamis.or.kr)

□ 2018년 단감 평균 소매가격은 상품(上品) 기준 개당 1,092원으로, 전년대비 18.4% 증가함

- 도매가와 마찬가지로 2~3월에 가장 높은 가격대를 형성함
 - 2월의 단감 소매가격이 개당 1,217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40.1% 상승함
 - 2017년 경상남도 지역에서 생육기 가뭄으로 중량이 미달된 비상품과가 대량 발생하여 많은 농가에서 단감 수확을 포기하였고, 이에 따라 2017년 총 단감 생산량이 감소하며 2018년 초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생산량 감소로 대과 가격이 높은 가격대에 형성되어 저장량이 감소하였고, 그 결과 저장 감 출하량도 줄어들어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표 I -2-2〉 2014~2018년 단감 소매가격 월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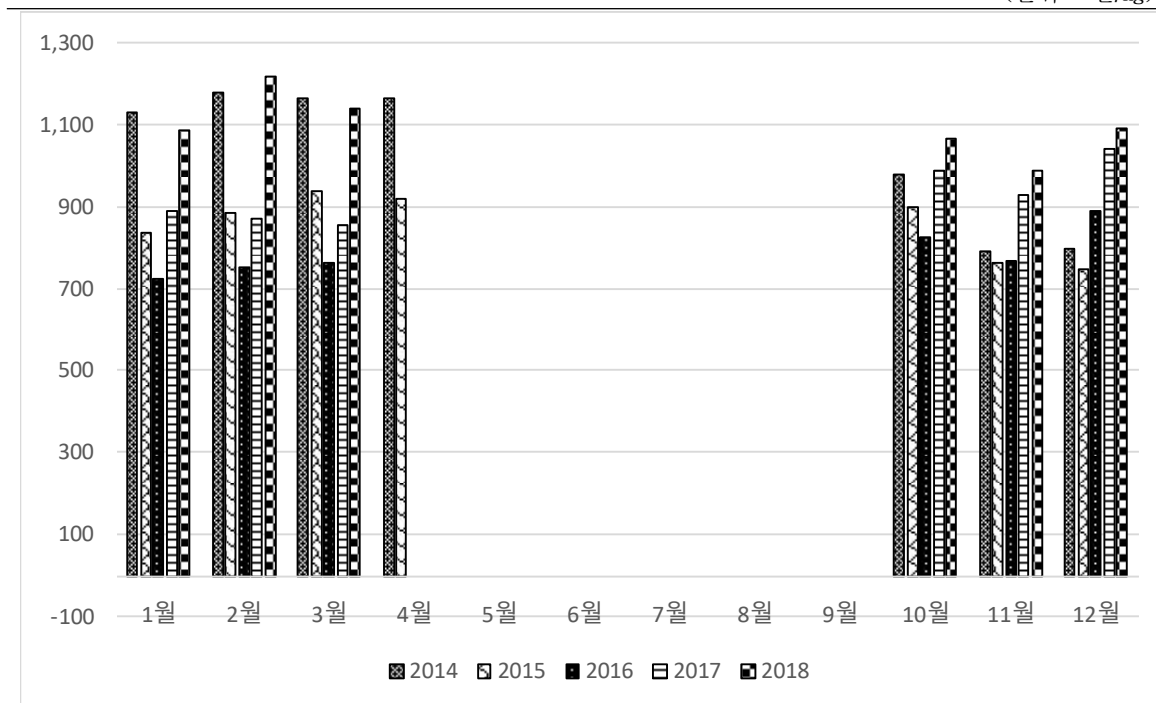
(단위 : 원/개)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2014	1,129	1,178	1,163	1,162	-	-	-	-	-	979	789	796	1,018
2015	835	886	936	917	-	-	-	-	-	900	762	749	846
2016	724	751	763	-	-	-	-	-	-	826	765	890	784
2017	887	868	854	-	-	-	-	-	-	989	928	1,039	922
2018	1,083	1,217	1,137	-	-	-	-	-	-	1,067	989	1,091	1,092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www.kamis.or.kr)

〈그림 I -2-3〉 2014~2018년 단감 소매가격 월별 추이

(단위 : 원/kg)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www.kami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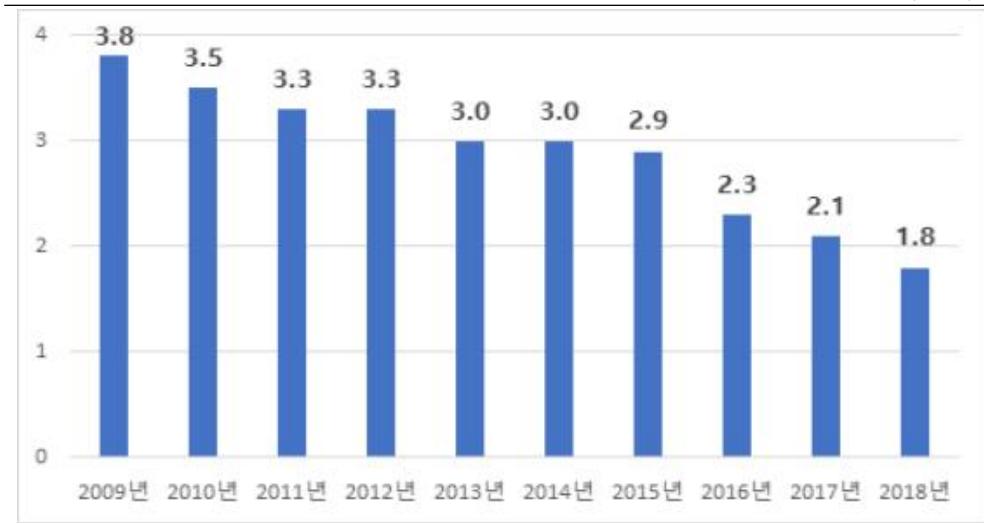
3. 소비현황

□ 국내 단감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소비량 역시 줄어드는 추세임

- 2018년 1인당 연간 단감 소비량은 전년대비 14.3% 감소한 1.8kg으로 추정됨
- 2017년 기준 단감의 국내 총 소비량은 10만 7,000톤, 1인당 소비량은 2.1kg으로 집계됨

〈그림 I -3-1〉 2009~2018년 1인당 연간 단감 소비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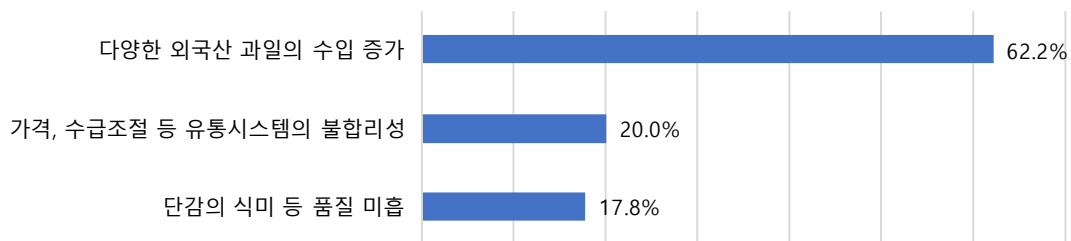
(단위 : 개)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2019.05.

-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단감연구소에서 조사한 소비자 설문결과⁵⁾에 따르면, 단감 소비량이 점차 줄어드는 원인으로 ‘다양한 외국산 과일의 수입증가’가 꼽힘
- 뒤이어 ‘가격, 수급조절 등 유통시스템의 불합리성’, ‘단감의 식미 등 품질 미흡’ 등으로 인해 단감 소비량이 줄어든다고 응답함

〈그림 I -3-2〉 단감 소비감소 이유



* 출처 : 경상남도청 온라인 패널조사(www.gyeongnam.go.kr), 「단감 소비촉진 및 산업활성화를 위한 인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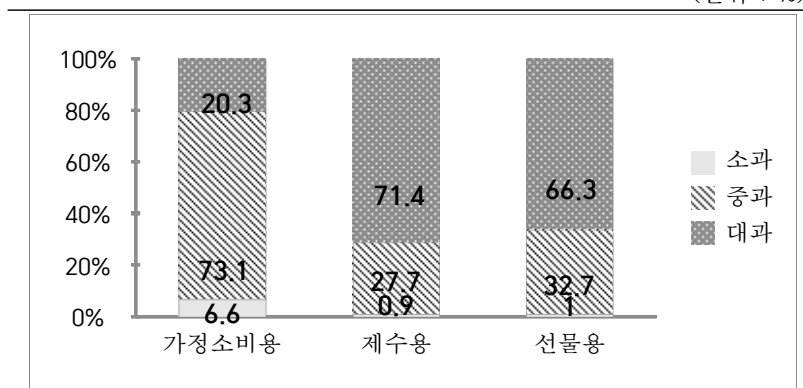
5) 경상남도청 온라인 패널조사, 「단감 소비촉진 및 산업활성화를 위한 인식 조사」(2018.05.01.~2018.05.31.)

□ 단감은 일반적으로 중·대과 사이즈가 선호되나, 용도에 따라 차이를 보임

- 제수용 및 선물용 소비의 경우, L~3L 사이즈(214g~300g 이상)의 대과를 선호함
 - 제수용 소비 시 대과 선호 비중은 71.4%에 달하며, 선물용 소비 시에는 전체의 66.3%가 대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가정소비용의 경우 M사이즈(188g~214g)의 중과 선호도가 높는데, 전체 응답자의 73.1%가 생식용 소비로 중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3-3> 단감 용도별 선호 크기

(단위 : %)



* 주 : 단감 크기는 소과(3S, 2S, S), 중과(M), 대과(L, 2L, 3L)로 구분됨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패널조사(www.krei.re.kr)(2016.12.22~2016.12.23.)

□ 국내에서 단감은 주로 생식용으로 섭취하며, 가공형태는 술, 식초, 음료 등으로 한정적인 편임

- 2016년 기준 단감 생산량 12만 4,020톤 중 가공용 물량은 약 371톤으로, 약 0.3%에 불과함
 - 가공용 소비는 식초, 음료 및 기타, 주스 등으로 제조 사용되는데, 동년 단감 식초 제조를 위한 단감 소비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3-1> 2006~2016년 단감 가공형태

(단위 : 톤)

유형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0	0	702	300	108	69	72	142	292	313	371
식초	0	0	700	250	78	55	67	139	119	148	255
음료 및 기타	0	0	2	0	0	2	3	1	172	164	100
주스	0	0	0	0	0	0	0	0	0	0	16
술	0	0	0	50	30	12	1	1	1	1	0
통조림	0	0	0	0	0	0	0	0	0	0	0
넥타 ⁶⁾	0	0	0	0	0	0	0	0	0	0	0
잼	0	0	0	0	0	0	1	1	0	0	0

* 출처 : 2015 과실류 가공현황.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6) 과실을 간 후 체로 거른 죽 상태의 액즙을 원료로 가공한 것

4. 수출현황

1) 단감 수출현황

□ 2018년 한국산 단감 수출물량은 전년대비 19.2% 감소한 5,660톤으로 집계됨

- 수출물량 감소는 당해 연도 생산량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
 - 2017년 국내 단감 생산량 11만 4,330톤 중 수출물량은 7,002톤으로 수출량은 생산량의 6.1%를 차지함
 - 2018년 수출량은 5,660톤으로 전체 생산량 10만 4,362톤 중 약 5.4%의 비중을 차지해 생산량에서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0.7%가량 감소함
- 2018년도 주요 수출국은 말레이시아로, 전체 수출물량의 약 45.6%에 달하는 2,581톤이 수출됨
 - 말레이시아는 2012년 이후 매 해 전체 수출물량의 최소 37%에서 최대 49%를 차지하는 주요 수출국임
- 이 외에도 싱가포르, 필리핀, 홍콩 등으로 한국산 단감이 수출되고 있음
 - 동년 싱가포르로의 수출물량은 833톤으로 전체의 14.7%를 차지함
 - 또한 對필리핀, 홍콩으로의 수출은 각각 706톤(12.5%), 687톤(12.1%)으로 집계됨

〈표 I -4-1〉 2009~2018년 한국 단감 수출현황

(단위: 톤)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 세계	N/A	N/A	N/A	8,744	7,361	8,428	8,612	6,818	7,002	5,660
1 말레이시아	N/A	N/A	N/A	4,090	3,376	3,328	3,362	2,542	3,414	2,581
2 싱가포르	N/A	N/A	N/A	1,294	1,221	1,177	1,483	753	892	833
3 필리핀	N/A	N/A	N/A	657	586	993	802	933	729	706
4 홍콩	N/A	N/A	N/A	910	606	1,051	1,189	857	838	687
5 캐나다	N/A	N/A	N/A	1,062	730	1,002	797	535	421	455
6 태국	N/A	N/A	N/A	311	247	364	537	763	412	208

* 주: HS Code 0810.70-1000(단감) 기준

* 출처: GTA(Global Trade Atlas)

□ 2018년 한국산 단감의 평균 수출단가는 kg당 1.3달러(한화 약 1,547원)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함

- 주요 수출국인 말레이시아로의 수출단가는 평균 이하인 1.1달러(한화 약 1,309원)/kg로 집계됨

- 싱가포르로의 수출단가는 1.2달러(한화 약 1,428원)/kg로 나타남
- 필리핀, 홍콩, 캐나다, 태국으로의 수출단가는 평균에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남
 - 필리핀, 캐나다, 태국으로의 수출단가는 kg당 각각 1.6달러(한화 약 1,904원)로 집계되었으며, 홍콩으로의 수출단가는 1.5달러(한화 약 1,785원)로 확인됨

〈표 1-4-2〉 2009~2018년 한국 단감 수출단가

(단위: 달러/kg)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 세계	N/A	N/A	N/A	1.5	1.4	1.5	1.3	1.3	1.1	1.3
1 말레이시아	N/A	N/A	N/A	1.3	1.3	1.4	1.2	1.1	1.0	1.1
2 싱가포르	N/A	N/A	N/A	1.4	1.3	1.4	1.2	1.1	1.1	1.2
3 필리핀	N/A	N/A	N/A	1.8	1.7	1.7	1.4	1.4	1.3	1.6
4 홍콩	N/A	N/A	N/A	1.5	1.5	1.6	1.4	1.3	1.2	1.5
5 캐나다	N/A	N/A	N/A	1.8	1.7	1.6	1.5	1.4	1.4	1.6
6 태국	N/A	N/A	N/A	1.7	1.5	1.7	1.4	1.4	1.3	1.6

* 주: HS Code 0810.70-1000(단감) 기준

* 출처: GTA(Global Trade Atlas)

□ 단감 수출은 9월부터 시작되어 익년 2월까지 진행되며, 단감의 주 출하기인 10월과 11월 최대 물량이 수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기준 10월과 11월의 수출물량은 각각 1,458톤과 3,167톤으로, 두 달간 전체 수출의 51.8%에 달하는 물량이 수출됨
- 말레이시아로의 수출은 10월부터 시작되어 익년 1월까지 진행되며, 11월에 연간 최대 물량인 1,527톤이 집중적으로 수출됨
- 이 외 국가로도 10월부터 수출이 시작되어 11월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싱가포르와 캐나다의 경우 익년 1월까지, 필리핀과 홍콩으로는 익년 2월까지 소량의 단감 수출이 이어짐

〈표 1-4-3〉 2018년 한국 단감 월별 수출추이

(단위: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 세계	484.9	9.6	-	-	-	-	-	-	60(kg)	1,457.8	3,166.6	616.7
1 말레이시아	174.9	-	-	-	-	-	-	-	-	688.7	1,527.2	190.5
2 싱가포르	75.7	-	-	-	-	-	-	-	-	192.8	525.5	39.2
3 필리핀	96.7	8.2	-	-	-	-	-	-	-	76.8	328.6	195.4
4 홍콩	3.8	1.4	-	-	-	-	-	-	-	259.4	323.2	99.6
5 캐나다	56.8	-	-	-	-	-	-	-	-	106.3	271.8	19.6
6 태국	-	-	-	-	-	-	-	-	-	38.2	130.5	58.8

* 주: HS Code 0810.70-1000(단감) 기준

*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 주로 수출되는 단감 품종은 부유로, 최근 수출품목 다양화를 위해 로망 등 타 품목이 육성되고 있음

- 국내 생산량의 약 80%가량을 차지하는 부유가 주로 수출되어 왔으며, 이러한 생산 및 수출 편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는 고품질·고당도 중생종 품종인 로망을 개발하여 수출용 품종으로 선발함
- 신품종인 로망은 저장성이 좋아 수출국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유를 대체할 수 있는 新수출품종이 될 것으로 기대됨

2) 對태국 수출추이

□ 2012년 이후 7년간 한국산 단감의 태국 수출은 연평균 6.5%씩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 수출물량은 지난 2012년 대비 약 33% 감소함

- 2018년 對태국 수출물량은 약 208톤으로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표 I -4-4〉 2012~2018년 한국산 단감 對태국 수출현황

(단위 :kg)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310,590	246,510	363,630	537,120	763,100	411,880	207,900

* 주: HS Code 0810.70-1000 기준

* 출처 : GTA(Global Trade Atlas)

□ 2018년 국산 단감의 태국 수출단가는 kg당 1.6달러(한화 약 1,904원)로 집계됨

- 2013년 이후 태국으로의 단감 수출단가는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전년대비 17.2% 증가한 kg당 1.6달러(한화 약 1,904원)로 집계됨
- 2013년 이후 줄곧 감소세를 보이던 對태국 수출단가는 2017년을 기점으로 반등세로 돌아섬
 - 2017년 생육기 가뭄에 따른 단수감소와 사과 비중 증가로 인해 단가가 낮은 사과 위주로 수출이 이루어져 수출단가가 낮았던 것으로 분석됨⁷⁾

〈표 I -4-5〉 2013~2018년 對태국 수출단가 변동추이

(단위 : 달러/kg)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對세계 수출단가	1.4	1.5	1.3	1.3	1.1	1.3
對태국 수출단가	1.5	1.7	1.4	1.4	1.3	1.6

* 주 : HS Code 0810.70-1000 기준

* 출처 : GTA(Global Trade Atlas)

7) 출처: Kati, ‘2017 단감 수출동향’

□ 2018년 기준 태국으로의 단감 수출은 10월부터 12월까지 집중되어 있음

- 10월부터 수출되기 시작해 11월 최대 물량이 공급된 이후 12월까지 이어짐
- 11월의 對태국 단감 수출물량은 131톤으로 연간 수출물량의 62.8%를 차지함
- 10월과 12월은 각각 38톤(18.4%)과 39톤(18.9%)로 유사한 수준을 보임

〈표 I -4-6〉 2018년 월별 단감 수출추이

(단위 : kg,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對태국 수출액	-	-	-	-	-	-	-	-	-	38,200	130,500	39,200
월별 비중	-	-	-	-	-	-	-	-	-	18.4	62.8	18.9

* 주: HS Code 0810.70-1000 기준

* 출처: 한국무역협회 K-STAT>해외무역통계(stat.kita.net)

□ 태국으로 국산 감(단감 포함) 수출 시 30%의 관세율 또는 kg당 25.13THB(한화 약 990원)가 부과됨

- 한·아세안 FTA의 협정세율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되어야 하나, 상호대응세율에 의해 태국은 한국산 감에 협정세율을 적용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한국산 단감 수출 시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30%의 세율과 kg당 25.13THB(한화 약 990원)를 적용한 세액 중 높은 가격이 적용됨

〈표 I -4-7〉 2018년 태국 단감 관세율표

HS Code	품명	세율	
		기본	한·아세안FTA
0810.70-00	감(Persimmons)	30% 또는 25.13THB/kg	면제

* 출처 : 한국무역협회 통합무역정보서비스>FTA/관세>세계의 관세율(<http://www.tradenavi.or.kr/>)

II. 태국 시장동향

1. 생산현황

1) 재배품종

□ 태국에서 재배되는 단감 품종으로는 부유, 하쿠메, P2 등이 있음

- 기본적으로 태국에서는 감 재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로얄프로젝트(Royalproject)⁸⁾를 통해 대만 등 타 국가에서 도입한 다양한 품종을 기반으로 태국 재배환경에 적합한 품종을 육성하였음
- 태국산 단감은 당도가 낮고 수분 함량이 적어 사과와 비슷한 맛과 식감을 지님⁹⁾

〈표 II-1-1〉 주요 단감 품종

종류	사진	특징
부유 (Fuyu)		• 중대형의 둥글지만 다소 평평한 모양임 • 완숙 시 과피는 신선한 주황색, 과육은 노란색을 띠 • 주로 신선한 상태로 먹으며, 말린 감이나 잼 등으로 가공할 수도 있음 • 매우 천천히 자라는 종으로, 추운 날씨에서 재배가 적합해 해발고도 1,200m 이상의 지역에서 재배됨 • 비에 노출되면 제품이 매우 손상된다는 특징이 있음
하쿠메 (Hyakume)		• 대만에서 수입한 품종으로 과피에 검은 얼룩이 있어 외관상으로 아름답지는 않으나 품질은 매우 좋음 • 심장과 같이 긴 모양으로 중량은 약 150~200g의 수준이며 과육은 갈색을 띠 • 신선한 상태로 사용되는 것 외에도 말린 감이나 잼 등으로 가공할 수 있음
P2 (Xichu)		• 정사각형에 둥글고 평평한 모양으로 과실의 크기는 부유보다 작음 • 과피는 연한 노란색으로 초세가 강해 성장이 빠르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임

* 출처: 로얄프로젝트재단(www.hisour.com/ko/royal-project), 도이푸이연구원(Doipui Research Station)

8) 로얄프로젝트는 태국의 Bhumibol Adulyadej 국왕의 주도 하에 시작된 정책으로, 대체농작물 축진을 통해 삼림벌채, 빈곤 및 아편생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9년에 추진됨

9) 현지 유통업체 THAI AGRO EXCHANGE CO., LTD. (딸랏파이 도매시장) 담당자 인터뷰 결과(2019.07.25)

2) 생산동향

□ 태국의 단감 생산량 및 재배면적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현지 업계 전문가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연간 약 300톤가량의 단감이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됨

- 태국 딸랏파이 도매시장 관계자와의 인터뷰 결과, 태국산 단감은 연간 약 300톤가량 생산되어 해당 도매시장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¹⁰⁾
- 주요 재배지는 로얄프로젝트 재단이 위치한 태국 북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남¹¹⁾
 - 로얄프로젝트 개발센터가 있는 치앙마이, 치앙라이 등 북부 6개성의 39개의 개발센터에서 단감이 재배되고 있으며, 주 재배지는 치앙마이와 치앙라이인 것으로 추정됨
- 태국에서 생산되는 단감의 출하기는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주로 7월부터 출하가 시작됨
 - 부유와 P2의 경우 7월부터 출하되기 시작해 익년 2월까지 유통되며, 하쿠메는 8월과 9월 한시적으로 출하됨

〈표 II-1-2〉 태국 감 출하 및 유통시기

품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부유												
하쿠메												
P2												

* 출처: 로얄프로젝트재단(www.hisour.com/ko/royal-project)

□ 태국에서 재배되는 감의 세부 품질등급은 중량에 따라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뉨¹²⁾

- 등급규격

등급	선별 기준
특	약 120g 이상으로 품종에 따른 좋은 상태이며, 병해충으로 인한 결함이 없고, 흠집이 5% 이하임
1	약 100~199g으로 품종에 따른 좋은 상태이며, 병해충으로 인한 결함이 없고, 흠집이 5% 이하임
2	약 85~99g으로 품종에 따른 좋은 상태이며, 병해충으로 인한 결함이 없고, 흠집이 5% 이하임

* 출처 : 태국 고지연구개발원(hkm.hrdi.or.th)

10) 현지 유통업체 THAI AGRO EXCHANGE CO., LTD. (딸랏파이 도매시장) 담당자 인터뷰 결과(2019.07.25)

11) 로얄프로젝트재단(www.hisour.com/ko/royal-project), 2019.06 기준

12) 단감에 대한 특정 품질등급은 언급되어있지 않음에 따라 감의 품질등급으로 같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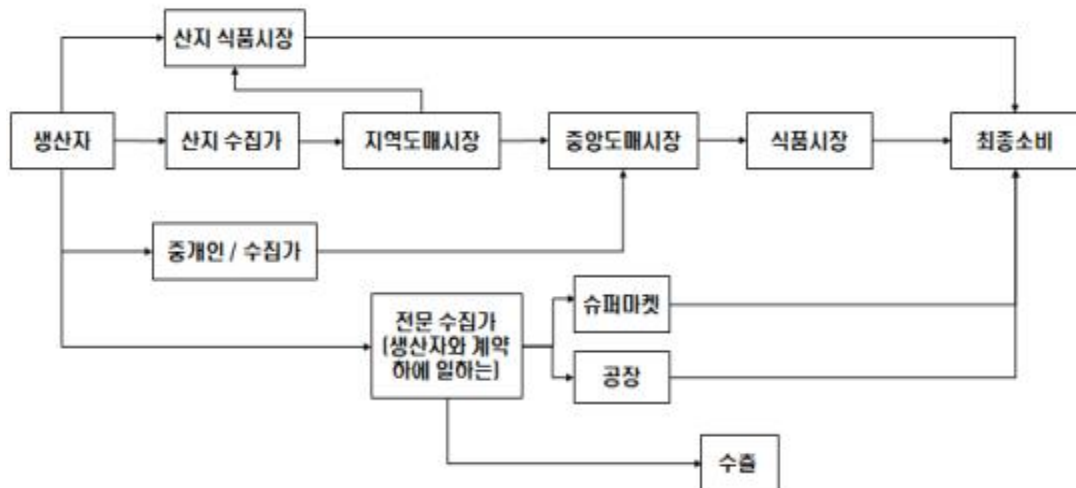
2. 유통현황

1) 유통구조

□ 태국의 신선 농산물 유통채널은 크게 전통적 경로와 현대적 경로로 구분됨

- 전통적 경로는 일반적으로 ‘생산자 → 수집가(협동조합 또는 중개인) → 지역 도매시장 → 소매상 → 소비자’를 의미하며,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있음
 - 태국의 대표적 도매시장으로는 딸랏파이(Talaad Thai)가 있으며, 지역별로 다양한 전통시장이 있음
- 현대적 공급체인들은 보통 계약된 생산자로부터 직접 공급받으며, 불충분한 경우 도매시장을 통해 물량을 확보함
 - 전통적 경로에 비해 과정이 간략하며, 대형마트나 백화점, 슈퍼마켓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판매됨
- 수입된 과일은 주로 딸랏파이 도매시장에 보관되며, 수요가 있을 때마다 식품 시장으로 유통됨

<그림 II-2-1> 태국 내 신선 농산물 유통경로



* 출처: Wongprawmas, Rungsaran & Canavari, Maurizio & Waisarayutt, Chutima. (2015), A multi-stakeholder perspective on the adoption of Good Agricultural Practices in the Thai fresh produce industry. British Food Journal. 117. 2234-2249, (원출처: Adapted from Johnson et al. (2008))

2) 도 · 소매가격

□ 2018년 태국의 산지별 감 도매가격은 일본산 > 뉴질랜드산 > 한국산 > 중국산 > 태국산 순으로 고가에 형성되어 있음

- 일본산 감의 연평균 도매가격은 158THB(한화 약 6,153원)/kg로 5개 산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2L 사이즈 감의 연평균 도매가격이 168THB(한화 약 6,542원)/kg로 가장 고가에 유통되며, 뒤이어 3L 사이즈 164THB(한화 약 6,386원)/kg, L 사이즈 142THB(한화 약 5,529원)/kg로 나타남
 - 시기별로는 1월 평균 도매가격이 kg당 178THB(한화 약 6,931원)로 가장 높으며, 이후 2월과 3월 도매가격이 줄곧 하락함
- 뉴질랜드산 감의 연평균 도매가격은 91THB(한화 약 3,544원)/kg로 나타남
 - 뉴질랜드산 감은 3월 최고가인 121THB(한화 약 4,712원)/kg에 유통되며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이다가 9월과 10월 소폭 반등하는 양상을 보임
 - 반면 최저가에 유통되는 시기는 7월로, kg당 64THB(한화 약 2,492원)/kg에 유통됨
- 한국산 감의 연평균 도매가는 52THB(한화 약 2,025원)/kg로 5개 산지 중 3번째로 높은 수준임
 - 사이즈별로는 2L 사이즈의 도매가격이 75THB(한화 약 2,921원)/kg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뒤이어 S 사이즈 46THB(한화 약 1,791원)/kg, L 사이즈 43THB(한화 약 1,674원)/kg, M 사이즈 42THB(한화 약 1,635원)/kg로 나타남
 - 유통시기별로는 3월의 도매가가 84THB(한화 약 3,271원)/kg로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1월이 26THB(한화 약 1,012원)/kg로 최저가에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산 감은 평균 31THB(한화 약 1,207원)/kg에 유통되며, 1~2월과 10월에 가장 높은 단가를 형성하고 있음
 - 중국산 감의 최고 도매가는 38THB(한화 약 1,480원)/kg, 최저가는 22THB(한화 약 857원)/kg로 나타남
- 태국산 감의 평균 도매가격은 20THB(한화 약 779원)/kg로 5개 산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 대과 사이즈가 25THB(한화 약 974원)/kg로 가장 고가에 유통되며, 중과 20THB(한화 약 779원)/kg, 소과 16THB(한화 약 623원)/kg로 나타남
 - 태국산 감은 7월부터 10월까지 유통되는데, 7월과 8월에는 17THB(한화 약 662원)/kg, 9월과 10월에는 18THB(한화 약 701원)/kg로 비교적 균등한 가격추이를 보임

〈표 II-2-1〉 2018년 태국 감 산지별 도매가격(태국산, 중국산, 한국산)

(단위: THB/kg)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태국산(소과)	-	-	-	-	-	-	22	12	15	14	-	-	16
태국산(중과)	-	-	-	-	-	-	30	15	17	17	-	-	20
태국산(대과)	-	-	-	-	-	-	35	23	21	22	-	-	25
태국산 평균	-	-	-	-	-	-	17	17	18	18	-	-	20
한국산(S)	-	-	-	-	-	-	-	-	60	38	43	43	46
한국산(M)	39	34	34	-	-	-	-	-	65	44	38	43	42
한국산(L)	39	29	27	-	-	-	-	-	51	51	52	51	43
한국산(2L)	28	31	190	-	-	-	-	-	-	68	68	68	75
한국산 평균	26	31	84	-	-	-	-	-	44	67	50	51	52
일본산(L)	167	142	146	-	-	-	-	-	-	-	112	-	142
일본산(2L)	167	192	146	-	-	-	-	-	-	-	-	-	168
일본산(3L)	200	146	146	-	-	-	-	-	-	-	-	-	164
일본산 평균	178	160	146	-	-	-	-	-	-	-	112	-	158
중국산	38	38	22	-	-	-	-	-	-	38	26	25	31
뉴질랜드산	-	-	121	118	121	93	64	68	73	70	-	-	91

* 주1: 월별 통계치 중 가장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최대가격과 최소가격의 평균임

* 주2: 단감 특정 도매가격 데이터 존재하지 않아 감의 데이터로 갈음함

* 주3: 중국산의 경우 10kg 박스가격을 1kg으로 환산한 수치이며, 한국산의 경우 박스 당 가격만 확인 가능하여,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10kg 박스로 추정하여 1kg으로 환산한 수치임

* 주4: 뉴질랜드산의 경우 14개입 1박스 당 가격을 바탕으로 과실 1개당 가격을 추정하였음

* 주5: 일본산의 경우 박스 당 가격만 확인 가능하여, 일본산 단감이 박스 당 약 12개 내외로 거래된다는 점을 고려해 개당 가격을 추정하였음

* 출처: 딸랏따이 도매시장 가격정보 페이지(talaadthai.com)

2) 제품분석

□ 단감은 고급슈퍼마켓, 슈퍼마켓, 대형마트, 과일소매점, 도매시장 등 다양한 곳에서 판매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도매시장에서는 상자에 진열되어 낱개로 판매되며, 소매점에서는 개별과에 스티커 라벨이 부착된 채로 판매되고 있음
- 현지조사 기간¹³⁾ 내 대다수의 소매유통채널에서는 뉴질랜드산 단감 한 품목만이 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됨
 - 뉴질랜드산 단감은 색택이 선명하고 균일한 주황색을 띠며, 과가 큰 것이 특징임
 - 잔무늬가 없고 과피에 흠이 없어 상품성이 좋으며, 씨가 없어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남
 - 평균당도는 13.5° Bx이며, 경도가 높아 식감이 아삭함
- 현지 수입업체와의 인터뷰 결과, 태국산 단감은 일반적으로 시장에 비정기적으로 출하되어 판매 형태의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태국에서 유통되는 단감은 대부분 부유로, 원산지별 사이즈 및 포장규격의 기준이 상이함

-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산 단감은 개별 과 기준 12 사이즈(335g)가 유통되며, 일본산 단감은 4L 사이즈(313g), 한국산 단감은 2L 사이즈(286g)가 유통되고 있음
- 수입산 단감의 포장상자 규격은 뉴질랜드산 4kg, 일본산 7.5kg, 한국산 10kg로 확인됨
- 태국시장에서 유통되는 한국산 단감의 가격은 80~90THB(한화 약 3,165~ 3,561원) 수준으로, 일본산 단감과 뉴질랜드산 단감의 중간가격대에 위치하고 있음

〈표 II -2-2〉 태국 내 단감 제품별 특징

원산지	크기	품종	포장규격	특징
뉴질랜드	12사이즈(335g)	부유	4kg	씨가 없음
일본	4L사이즈(313g)	부유	7.5kg(24개)	-
한국	2L사이즈(286g)	부유	10kg(30~40개)	-
태국	매우 작음	부유, 하쿠메, P2	-	수급량이 일정하지 않음

* 주: 뉴질랜드산 단감의 크기 규격은 12-14-16-18이 있으며 12 사이즈의 중량만 확인이 가능하였음

* 출처: 태국 과일수입업체 Food Gallery Ltd.社 제공 자료 토대로 수입업체 3개사 의견 종합

□ 수입산 단감의 평균가격은 개당 85.7THB(한화 약 3,394원)로, 고급 슈퍼마켓 > 슈퍼마켓 > 대형마트 > 과일소매점 순으로 고가에 판매됨

- 고급 슈퍼마켓에서의 단감 평균 가격은 개당 147.3THB(한화 약 5,827원)로 집계되었으며, 대형마트에서의 판매가격은 개당 56.5THB(한화 약 2,236원)임
- 현지 고급 슈퍼마켓체인인 고메마켓에서 판매되는 단감이 199THB(한화 약 7,862원)으로 가장 고가에 판매되었으며, 같은 라벨의 제품이 대형마트 빅씨에서는 55THB(한화 약 2,173원)에 판매되는 것이 확인됨
- 슈퍼마켓에서의 평균가격은 개당 89THB(한화 약 3,522원), 과일소매점은 50THB(한화 약 1,979원)로 나타남
- 현지 슈퍼마켓 체인인 푸드랜드에서 판매되는 뉴질랜드산 단감은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12 사이즈(335g)보다 대과 상품으로, 타 소매점보다 가격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2-3> 수입산 단감 채널별 가격대 및 평균가격

(단위: THB/개)

점포명		뉴질랜드산 단감
고급슈퍼마켓	빌라마켓(Villa Market)	-
	고메마켓(Gourmet Market)	199
	탑스마켓(Tops Market)	95.6
	채널 평균	147.3
대형마트	테스코로터스(Tesco Lotus)	58
	빅씨(Big C)	55
	채널 평균	56.5
슈퍼마켓	푸드랜드(Food Land)	89
	채널 평균	89
과일소매점	위알프루트(Wee R Fruit)	50
	채널 평균	50
전 채널 평균		85.7

* 주1: 고급슈퍼마켓, 대형마트, 슈퍼마켓, 과일소매점 9개 매장, 11개 제품 대상 조사 결과

* 주2: 현지조사 시기(2019.07) 태국 현지 내 유통 중인 단감이 뉴질랜드산 단일 품목임에 따라 뉴질랜드산에 대한 가격 조사만을 진행하였음

* 주3: 슈퍼마켓 푸드랜드(Food Land)에서 판매 중인 단감만 과의 사이즈가 뉴질랜드산 16 사이즈로, 타유통채널에서 유통되는 12 사이즈보다 가격이 높음

* 출처: 현지조사 결과(2019.07)

□ 단감은 주로 냉장보관과 상온보관 방식으로 유통되며, 다수의 매장에서 개별과를 낱개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매장 및 지점별로 상품 진열방식이 상이하나, 대부분의 매장에서는 상온에 개별과를 진열해놓고 판매하고 있음

〈그림 II-2-2〉 단감 판매 매대 예시



상온 판매 매대(고급슈퍼체인 빌라마켓)



냉장 판매 매대(대형마트 빅씨)

* 출처: 자체 현지조사 결과

- 낱개 단위로 판매하는 매장이 다수였으며, 별도의 포장을 하지 않거나 난좌망 정도만 씌워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임
 -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가격, 중량 등의 정보를 담은 바코드와 브랜드(산지)를 나타내는 스티커 등이 과에 직접 부착되어 있음
 - 일부 매장에서는 단감을 4~5개로 봉지 포장하여 판매하기도 함

〈그림 II-2-3〉 단감 판매 포장 예시



스티커 라벨 부착 개별판매



흰색 스티로폼 싸개 포장



봉지 포장

* 출처: 자체 현지조사 결과

<그림 II-2-4> 단감 스티커 라벨 예시



상면 부착 중량, 가격정보 기재 라벨

측면 부착 원산지 기재 스티커

* 출처: 자체 현지조사 결과

□ 2019년 7월 기준 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뉴질랜드산 단감을 대상으로 관능검사를 진행한 결과, 과중은 265g, 당도는 평균 13° Bx로 확인됨

- 현지에서 유통되는 뉴질랜드산 단감은 부유로 한국산 단감의 품종과 동일하나, 씨가 없다는 특징이 있음
 - 과피와 과육은 선명한 주황색을 띠며, 평균 당도는 12~14° Bx로 조사됨
 - 과중은 평균 265g으로 한국산 단감 사이즈로 2L 과에 해당함
 - 개당 판매가격은 99THB(한화 약 3,808원)로 별도의 포장 없이 과일 표면에 라벨을 부착해 판매됨

사진	  
원산지	뉴질랜드
품종	부유(Fuyu)
구매처	탑스마켓 로빈슨 수쿰빗점
가격	99THB(한화 약 3,808원)
중량	265g/개
당도	12~14° Bx
특징	씨가 없으며, 과육이 다소 무름

제품사진			
품종	부유	부유	부유
원산지	뉴질랜드	뉴질랜드	뉴질랜드
판매처	Tops Market	Tops Market	Tops Market
가격	129THB/개(한화 약 5,023원)	99THB/개(한화 약 3,855원)	59THB/개(한화 약 2,297원)
제품사진			
품종	부유	부유	부유
원산지	뉴질랜드	뉴질랜드	뉴질랜드
판매처	Gourmet Market	Big C	Tesco Lotus
가격	199THB/개(한화 약 7,854원)	55THB/개 (한화 약 2,170원)	59THB/개(한화 약 2,328원)
제품사진			
품종	부유	부유	부유
원산지	뉴질랜드	뉴질랜드	뉴질랜드
판매처	Tesco Lotus	Tesco Lotus	Food Land
가격	57THB/개(한화 약 2,249원)	57THB/개(한화 약 2,249원)	89THB/개 (한화 약 3,512원)
제품사진			
품종	부유	부유	
원산지	뉴질랜드	뉴질랜드	
판매처	Wee R Fruit(과일소매점)	Wee R Fruit(과일소매점)	
가격	50THB/1개(한화 약 원)	50THB/개(한화 약 1,973원)	

3. 소비현황

□ 2016년 기준 태국에서는 35세 이상 64세 이하의 연령대에서 감을 주로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남

- 35세 이상 64세 이하의 1인당 일일 감 소비량은 0.76g으로, 연평균 총 277.4g의 감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남
 - 뒤이어 18세 이상 34세 이하 연령대에서 연평균 230.0g의 감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 소비량이 가장 적은 연령대는 3세 이상 5세 이하로 연간 총 105.9g의 감을 소비하는 것으로 집계됨
- 태국에서 주로 소비하는 다른 과일(바나나, 망고 등)의 일일소비량과 비교 시 태국의 감 소비는 상당히 적은 편임
 - 35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대가 연평균 소비하는 바나나와 망고는 각각 11kg, 15kg로, 감 소비량은 1kg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확인됨
 - 이는 열대과일의 주산지인 태국에서 감을 대체할 수 있는 과일이 다양하게 공급되며, 또한 태국에서 감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표 II -3-1〉 2016년 태국 연령별 신선 감 일일 및 연간 소비량

(단위: g, %)

연령(세)	3세 이상 - 5세 이하	6세 이상 - 12세 이하	13세 이상 - 17세 이하	18세 이상 - 34세 이하	35세 이상 - 64세 이하	65세 이상
일일 소비량	0.29	0.35	0.36	0.63	0.76	0.33
연간 소비량	105.9	127.8	131.4	230.0	277.4	120.5
소비자비율	4.2	1.9	1.3	5.5	7.7	3.5

* 주1: 소비자비율은 각 연령별 총 인구에서 감을 소비하는 인구의 비율임

* 주2: 단감에 대한 별도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감의 데이터로 같음함

* 출처: 태국 농산물및식품표준국(ACFS)

□ 단감 과일 자체 인지도가 낮은 편이며¹⁴⁾, 단감을 소비하는 태국 소비자들은 크기가 크고 단단한 식감의 단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태국에서는 단감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며, 단감을 생소하게 여기는 소비자들이 많은 편임¹⁵⁾¹⁶⁾
- 단감을 소비하는 태국 소비자들은 크기가 크고 단단한 식감을 선호하며 착색이 균일하고 씨가 없는 단감을 선호함
 - 한국산 단감의 품질에 대해서는 고평가되고 있으나, 뉴질랜드산 단감에 비해 크기가 작고 씨도 있어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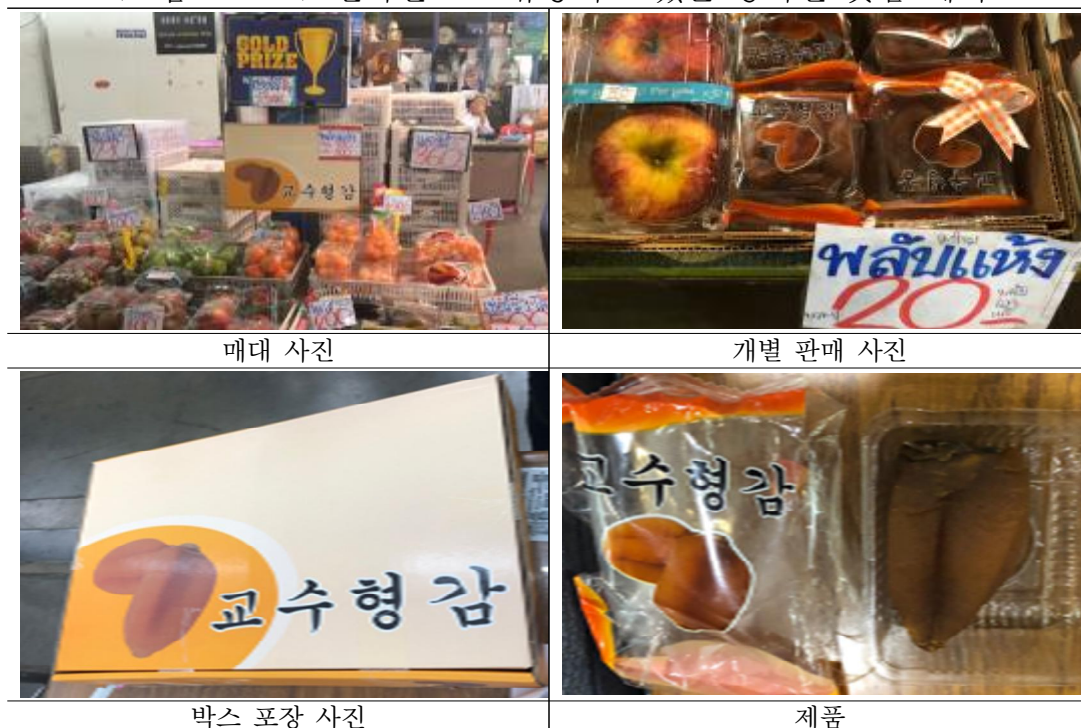
14) 현지 유통업체 THAI AGRO EXCHANGE CO., LTD. (팔랏파이 도매시장) 담당자 인터뷰 결과(2019.07.25)

15) 현지 유통업체 Bic C 담당자 인터뷰 결과(2019.07.24)

16) 현지 수입 및 유통업체 JidubanG Market 담당자 인터뷰 결과(2019.07.23)

- 한국산 단감은 뉴질랜드산 및 일본산에 비해 과형과 색택이 고르지 않고 크기 역시 균등하지 않아 상품성이 떨어짐¹⁷⁾
- 반면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한 중국산과 씨가 없어 먹기 간편한 뉴질랜드산 단감에 대한 현지 소비자들의 선호도는 높은 편임
- 중국산 단감은 짧은맛이 남아 있어 상품성이 좋지는 않지만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저가시장 내 수요를 충당하고 있음
- 뉴질랜드산 단감은 비교적 고가이나 일본산 프리미엄 단감 대비 저렴하며, 크고 외관이 수려하며,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바탕으로 고급 유통 채널 등에서 판매됨
- 일본산 단감은 날개별 별도의 포장을 통해 고급 상품으로 인식되며, 가격대가 높아 특히 연말연시의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음¹⁸⁾
- 일본산 단감은 외관이 수려해 상품성이 뛰어나며 뉴질랜드산보다 과육이 더욱 부드러운 것이 특징임
- 또한 개별 과를 진공 포장하여 상품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상품가치를 제고함
- 소비자들이 한국산과 중국산 단감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산’이라는 원산지 효과를 위해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여 유통되는 중국산 단감이 다수 발견됨

〈그림 II-3-1〉 한국산으로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꾀감 예시



* 출처: 자체 현지조사 결과

17) 현지 수입업체 FOOD GALLERY LIMITED 담당자 인터뷰 결과(2019.07.24)

18) 현지 수입업체 Vachamon Food Ltd. 담당자 인터뷰 결과(2019.07.24)

4. 수입현황

1) 태국 단감 수입현황

□ 2018년 태국의 단감 수입물량은 약 1만 532톤으로, 전년대비 29.9% 감소함

- 중국산 단감 수입물량은 약 9,668톤으로 전체 수입의 91.8%를 차지함
 - 2013년 이후 태국의 중국산 단감 수입은 매년 전체 물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본산 단감의 수입비중이 3.9%를 차지하며 중국산의 뒤를 이음
 - 전년대비 31.7% 증가한 411톤이 수입되었으며, 태국의 감 주요 수입국 중 유일하게 수입물량이 증가하여 최근 3년간 연평균 42.3%의 빠른 증가세를 보임
- 뉴질랜드와 한국산 단감은 각각 동년 수입비중 2.2%, 2.1%를 차지함
 - 뉴질랜드산 단감은 236톤 수입되었으며, 한국산 단감은 216톤 수입됨
 - 뉴질랜드산과 한국산 모두 최근 3년간 수입량이 감소하는 추세로, 뉴질랜드산의 경우 연평균 7.4%, 한국산은 43.2%의 감소세를 보임

〈표 II-4-1〉 2009~2018년 태국 단감 수입물량

(단위: 톤)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 세계		-	-	-	4,542	6,997	6,454	9,813	9,857	15,032	10,532
1	중국	-	-	-	3,842	6,398	5,718	8,867	8,708	13,918	9,668
2	일본	-	-	-	224	212	281	346	203	312	411
3	뉴질랜드	-	-	-	125	131	107	129	275	306	236
4	한국	-	-	-	329	222	347	464	670	497	216

*주: HS Code 0810.70(단감) 기준

*출처: GTA(Global Trade Atlas)

□ 태국의 2018년 평균 단감 수입단가는 kg당 0.9달러(한화 약 1,071원)로 집계됨

- 일본산 단감의 수입단가는 kg당 6.0달러(한화 약 7,140원)/kg로 주요 수입국 중 가장 고가에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뒤이어 뉴질랜드산이 5.5달러(한화 약 6,545원)/kg로 집계됨
- 한국산의 수입단가는 0.8달러(한화 약 952원)/kg로 중국산과 유사한 수준을 보임
 - 중국산의 경우 동년 kg당 0.6달러(한화 약 714원)에 수입되었음

〈표 II -4-2〉 2009~2018년 태국 단감 수입단가

(단위: 달러/kg)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 세계	-	-	-	1.0	0.7	0.8	0.7	0.9	0.8	0.9
중국	-	-	-	0.6	0.5	0.5	0.6	0.6	0.6	0.6
일본	-	-	-	4.6	4.2	4.3	3.5	7.2	4.7	6.0
뉴질랜드	-	-	-	4.3	5.1	5.0	4.9	5.1	5.5	5.5
한국	-	-	-	0.9	0.9	0.8	0.8	0.8	0.9	0.8

*주: HS Code 0810.70(단감) 기준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 2018년 기준 태국의 단감 수입은 연중 진행되며, 특히 10월부터 익년 1월까지 물량이 집중되어 있음

- 연간 최대 물량이 수입되는 11월의 수입물량은 2,891톤으로, 이 중 93.9%가 중국산으로 나타남
 - 반면 수입물량이 가장 적은 달은 8월로, 동월 뉴질랜드산 단감 수입비중이 97.7%에 달함
- 수입물량이 가장 많은 중국산 단감은 9월부터 수입되기 시작해 10월부터 12월까지 2천 톤 이상이 집중적으로 공급되며, 익년 3까지 수입이 유지됨
- 일본산의 경우 7~8월 1톤 미만의 소량이 수입되기 시작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입됨
 - 일본산 단감의 수입물량은 12월과 익년 1월에 집중되어 있음
- 뉴질랜드산 단감은 아시아 국가의 수입시기와 반대인 4월부터 8월까지 공급되며, 특히 6월의 수입물량이 91톤으로 최대 수준을 나타냄
- 한국산 단감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한정적으로 수입되며, 11월에 물량이 집중되어 있음

〈표 II -4-3〉 2018년 태국 단감 월별 수입물량

(단위: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 세계	1,562	153	54	15	55	91	62	13	387	2,682	2,891	2,566
1 중국	1,449	131	50	-	-	-	-	-	386	2,648	2,714	2,291
2 일본	80	22	4	-	-	-	0.2	0.3	1	33	51	218
3 뉴질랜드	-	-	-	15	55	91	62	13	-	-	-	-
4 한국	33	-	-	-	-	-	-	-	-	0.5	126	57

*주: HS Code 0810.70(단감) 기준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2) 수입제도 및 규격

가. 통관 및 검역

□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 포함)·딸기·참외(멜론 포함)·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¹⁹⁾에서 감(단감 포함)에 해당하는 요령 중 통관 및 검역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수출 과수원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태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 과수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되어 있는 상업용 과수원이어야 하며, 태국 식물검역당국이 요청할 경우 등록증(수출농가 목록이 첨부된 선과장 승인서로 같음) 사본을 제출해야 함
 - 수출과수원은 과수원의 위생상태 유지, 병해충 통합관리 이행 또는 그 밖에 태국의 검역병해충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병해충 방제조치가 이행되어야 함
 - 제2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수출 과수원의 재배자는 재배기간 동안 등록 과수원의 위생관리, 병해충 예찰 및 방제활동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 “태국 수출 과수원(온실) 병해충 예찰·방제 기록부”에 따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함
 - 단, 재배자가 동 서식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양식을 비치하여 기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같음할 수 있으며 해당 기록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태국 식물검역당국이 요청할 경우 제출되어야 함
- 수출 선과장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태국 수출선과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되어야 하며 태국 식물검역당국이 요청할 경우 승인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 등록을 위해서는 “태국 수출 선과장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수출 선과 20일 전까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청해야 함
 - 수출 선과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실만 반입하여 선과해야 함
 - 수출 선과장 및 그 주변 지역에 선과 과정에서 선별된 폐기대상 과실 및 기타 병해충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오염물질이 없도록 유지해야 함
 - 수출 선과장은 선과, 포장 및 보관과 관련된 전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표준 작업절차(SOP)를 문서로 작성하여 비치해야 함
 - 수출 선과장에는 생과실에 대한 수출검역을 위한 검사실 또는 검사구역이 확보되어야 하며, 수출검역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검사대 및 조명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함

19) 국산 생과실 8개 품목(배, 사과, 복숭아, 포도, 감, 감귤, 참외, 딸기)의 對태국 수출을 위한 검역요건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18.12.14일자로 새로운 수출검역 요건이 제정·시행됨(출처: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 수출검역 및 증명서

- 등록된 선과장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수출 선과장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함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과 과정에 입회하여 선과 및 포장 중에 검역을 실시할 수 있음
- ‘라. 안정성’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됨
 - 다만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 처리된 후 재검역될 수 있음
-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이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화물에 대하여 다음의 부기사항을 기재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의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해야 함
 - “The consignment of (품목명) fruit was produced and prepared for export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for import of (품목명) from Korea to Thailand.”²⁰⁾
 -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선박 화물에만 해당)

○ 수입검역

- 해당 화물이 태국 수입지에 도착하면 태국 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수입허가서, 기타 관련 서류 및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수입 검역을 실시함
- 화물에서 살아있는 곤충, 병징, 쓰레기, 오염 종자, 및 기타 이물질이 검출되어서는 안 됨
- 화물에 대한 샘플은 식물검역관의 재량에 따라 임의로 채취되며, 병해충 발생 여부가 검사되어야 함
 - 살아있는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샘플에 대하여 실험실 분류동정 작업을 실시하고, 해당 화물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관을 보류함
- 1,000개 미만의 과실 화물의 경우 450개 또는 화물의 100%를 샘플 조사하고, 1,000개 이상의 과실 화물의 경우 600개에 대하여 샘플 조사함
- ‘라. 안정성’의 검역병해충이 수입검역 중 검출되는 경우 해당 화물에 대하여 (소독방법이 있는 경우) 적절히 소독처리하거나 재수출 또는 폐기해야 하고 동 조치 시 발생하는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함
- ‘라. 안정성’에 명시되지 않고, 검역적으로 잠재적 우려가 있는 살아있는 병해충이 발견되면, 해당 화물에 대하여 (소독방법이 있는 경우) 적절히 소독 처리하거나 재수출 또는 폐기해야함
 - 동 조치 시 발생하는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며, 태국 식물검역당국은 발견된 병해충에 대한 위험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동 병해충의 유입 경로 확인을 위해 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음

20) “동 (품목명) 생과실 화물은 한국산 (품목명) 생과실의 태국 수입 요건에 따라 수출용으로 생산되고 준비되었음.”

- 태국 식물검역당국이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실을 재수출 또는 폐기할 수 있고 동 조치 시 발생하는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함
- 컨테이너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음
- 컨테이너 봉인이 파손 또는 교체되어 있거나, 컨테이너 봉인번호가 식물검역증의 번호와 일치하지 않음
- 포장 라벨링이 누락되어 있거나 부정확하거나 완전하지 않음

나. 포장 및 라벨링

□ 상기의 「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 포함)·딸기·참외(멜론 포함)·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중 감(단감 포함)의 포장 및 라벨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생과실은 살아있는 곤충, 흙, 모래 및 잎, 잔가지, 잡초 종자, 식물 잔재물 또는 기타 검역 병해충의 오염 경로가 될 수 있는 식물체가 없는 새 것이고 청결한 포장재로 포장되어야 함
- 생과실은 병해충 감염 방지 등 검역적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함
- 각 포장상자의 외부에는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다음의 정보가 영문으로 표기되어야 함

〈표 II-4-4〉 태국 한국산 감(단감 포함) 라벨링 표기 사항

영문 표기 사항	국문 번역
Product or produce of Korea	한국산 상품 또는 농산물
Name of exporting company	수출 업체명
Name of fruit	과실 명
Packinghouse code (PHC)	선과장 등록 번호
Production unit code (PUC)	과수원 등록 번호

*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 포함)·딸기·참외(멜론 포함)·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 생과실이 개별 상자에 포장되어 수출되는 경우, 각 포장상자 마다 “EXPORT TO THAILAND” (태국 수출용) 표기가 보이도록 스탬프 날인 또는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 그러나 포장상자가 화물용 컨테이너에 팰릿(pallet)으로 적재되어 수출되는 경우에는 팰릿(pallet)의 4면에 동 표기가 보이도록 스탬프 날인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생과실 화물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는 국제기준(ISPM)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

다. 인증

□ 태국은 농식품 표준인증에는 2010년부터 시행된 ‘Q마크’ 제도가 있음

- 인증 농산물은 제품 포장에 녹색의 Q마크를 표시할 수 있음
 - 태국 농산물 및 식품표준국은 라벨을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크기를 15mm 이상으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그러나 Q마크의 신뢰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8월, 방콕과 치앙마이 등 주요 지역에서 Q마크가 부여된 채소 및 과일 샘플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안전하지 않은 수준의 오염물질 검출 비율이 61.5%로 드러남²¹⁾

□ 태국 유기농 농산물 인증에는 ThaiGAP이 있음

- 태국 농업부는 Cluster of Western GAP과 Global GAP를 기초로 Thai GAP 기준을 마련하였음
 - ThaiGAP 표준은 QR코드 기술을 채택하여 추적성을 강화하고 있음
 -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가 제조업체의 정보에 쉽고 정확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함
 - QR코드는 농장과 농부의 이름, 생산지역 등 제조업체의 농장정보를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과일 및 채소 제품의 안전성을 보다 확신할 수 있도록 함

〈그림 II-4-1〉 Q마크 인증라벨 및 ThaiGAP 인증라벨 예시



*출처 : 태국 농산물및식품표준국(ACFS), 태국 상공회의소 www.thaichamber.org / www.bangkokpost.com(마크사진)

21) 태국살충제경보네트워크(Thailand Pesticide Alert Network, Thai-PAN)

라. 안전성

- 상기의 「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 포함)·딸기·참외(멜론 포함)·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중 감(단감 포함)의 검역병해충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표 II -4-5〉 태국 한국산 감(단감 포함) 검역 병해충 리스트

구분		성분명
병(중)	진균	Aureobasidium pullulans
		Cercospora kaki (모무늬낙엽병)
		Colletotrichum horii (탄저병)
		Diaporthe eres (줄기마름병)
		Monilinia fructigena (잿빛무늬병)
		Monilinia laxa (잿빛무늬병)
		Mycosphaerella nawae (둥근무늬낙엽병)
		Pestalotiopsis longiseta (겹둥근무늬병)
		Zygophiala wisconsinensis (과피얼룩병)
		Tenuipalpus zhizhilashviliae (감나무애응애)
해충	응애	Panonychus ulmi (사과응애)
		Parthenolecanium corni (말채나무공각지벌레)
	노린재목	Lepidosaphes conchiformioides (배나무굴각지벌레)
		Lepidosaphes ulmi (사과굴각지벌레)
		Lopholeucaspis japonica (배나무흰각지벌레)
		Pinnaspis strachani (고사리핀각지벌레)
		Pseudaonidia duplex (조개각지벌레)
		Pseudaulacaspis pentagona (뽕나무각지벌레)
		Asiacornococcus kaki (감나무주머니각지벌레)
		Eriococcus lagerstroemiae (주머니각지벌레)
		Dysmicoccus wistariae (등나무가루각지벌레)
		Phenacoccus aceris (긴숨각지벌레붙이)
		Phenacoccus pergandei (큰숨각지벌레붙이)
		Planococcus kraunhiae (온실가루각지벌레)
	나비목	Ostrinia scapulalis (콩줄기명나방)
		Thyas junio (=Lagoptera junio) (무궁화밤나방)
		Stathmopoda masinissa (감꼭지나방)
		Grapholita molesta (복숭아순나방)
	총채벌레목	Ponticulothrips diospyrosi (감관총채벌레)

*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 포함)·딸기·참외(멜론 포함)·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III. 시장현황 비교 · 분석

1. 시장현황 비교

□ 태국 내 감 수요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산 단감의 수입 비중은 미미한 수준으로 시장확대가 요구됨

- 태국의 감 생산량은 연간 300톤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며, 대부분의 수요를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음
 - 한국산 단감 생산량은 약 10만 톤가량으로, 이 중 3.7%에 해당하는 208톤이 태국으로 수출됨
 - 2018년 기준 국내 단감 도매가격은 3,155원/kg이었던 것에 비해 對태국 수출단가는 1,904원/kg으로 국내가격보다 낮은 단가를 형성함에 따라 농가의 수출 전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2018년 태국의 단감 수입물량 중 한국산은 약 2.1%로, 평균 수입단가보다 낮은 kg당 952원에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태국의 한국산 단감 수입물량 역시 전체 수입의 2.1%에 불과한 수준으로 한국산 단감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가 요구되는 시장임

구분		한국	태국
생산	생산량(2018)	104,362톤	300톤(e) ¹⁾
	출하시기	9~11월	7월~익년 2월
	생산품종	부유, 차랑, 서춘조생 등	부유, 하쿠메, P2 등
유통	도매물량(2018)	N/A	N/A
	도매가격(2018)	3,155원/kg	779원/kg ²⁾
수출입	수출입물량(2018)	[전체] 5,660톤 / [태국] 208톤(3.7%)	[전체] 10,532톤 / [한국산] 216톤(2.1%)
	수출입가격(2018)	[평균] 1,547원/kg / [태국] 1,904원/kg	[평균] 1,071원/kg / [한국산] 952원/kg ³⁾
	관세율	對태국 신선 단감 수출 시 기본 30% 관세율 또는 25.13THB/kg 부과	

* 주1: 태국 단감 생산량에 대한 공식 통계자료는 없으며 해당 자료는 현지 전문가 추정치임

* 주2: 태국산 도매가격은 대과(974원/kg), 중과(779원/kg), 소과(623원/kg) 평균 가격

* 주3: 한국의 對태국 수출단가 집계치와 태국의 한국산 단감 수입단가 집계치에 차이가 있으나, 각 국에서 제공하는 공식 통계자료이므로 별도의 수정 없이 기재함(ITC Trademap 자료 활용)

* 주4: 환율기준 : 1USD=1,190.0원, 1THB=38.94원

*출처 : 통계청<국가통계포털>국내통계>주제별통계>농림어업(kostat.go.kr), 태국 로얄프로젝트재단(www.hisour.com/ko/royal-project), ITC Trademap(www.trademap.org), 딸랏파이 도매시장 가격정보 페이지(talaadthai.com)

2. 수출국 시장분석

□ 중국산 단감의 압도적인 물량이 수입되며 한국산 단감과 수입시기가 겹쳐 한국산 단감의 시장확대를 위한 적절한 수출전략이 요구됨

- 태국의 단감 수입량의 91.8%를 차지하는 중국산 단감은 한국산과 수입시기가 겹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긴 기간 동안 유통됨
- 반면 한국산 단감은 10월부터 익년 1월까지 소량의 물량이 한시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특히 11월에 물량이 집중적으로 제공됨

구분		물량	유통시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국산		300톤(e)												
수입산	중국산	9,668톤(91.8%)												
	일본산	411톤(3.9%)												
	뉴질랜드산	236톤(2.2%)												
	한국산	216톤(2.1%)												

□ 태국시장 내 수입산 단감은 부유 동일품종이나 산지별 품질 평가 및 인지도에 차이가 있음

- 수입산 단감 간에 외관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일본산 및 뉴질랜드산 단감은 품질이 우수하고 프리미엄 상품으로 인식됨
- 한국산 단감은 일본산 및 뉴질랜드산 단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균등하지 않은 품질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인지도 역시 낮음

소비행태	· 수입에 주로 의존하며 중국산 비중 매우 높음(91.8%) · 프리미엄 단감은 일본산 및 뉴질랜드산으로 이뤄짐 · 크기가 크고 단단한 식감, 균일한 색택과 씨 없는 단감 선호 · 단감 자체 인지도 낮음
품질비교	· 뉴질랜드산은 씨 없고 단단해 프리미엄으로 인식됨 · 한국산, 뉴질랜드산, 중국산은 부유 동일품종으로 외관상 차이 없음 · 한국산 단감 품질은 고평가되나 일본산, 뉴질랜드산에 비해 과형/색택/크기가 균등하지 않은 편
한국산인식	· 한국산 단감 인지도 미미함 · 경쟁국산 대비 큰 차이점 없음

□ 원산지별 평가

태국산	소량 생산 및 유통되나 영향력 미미함	중국산	- 품질 수준 낮으나, 가격경쟁력 보유 - 유통기간 길어 한국산 대비 인지도 높음 - 채래시장 위주 유통
일본산	- 프리미엄 고급상품으로 인식 - 뉴질랜드산과 품질 유사하나 식감 부드러움	뉴질랜드산	- 프리미엄 고급상품으로 인식 - 대과 위주, 수려한 외관, 고당도 - 일본산 대비 합리적 가격 - 안전성과 품질 신뢰도 높음
한국산	- 부유 위주 - 중국산 대비 안전성 확보 - 산지 인지도 구축 미흡 - 대형마트, 슈퍼마켓 위주 유통		

□ 원산지별 가격비교

구분	태국산	중국산	일본산	뉴질랜드산	한국산
수입단가	-	714원/kg	7,140원/kg	6,545원/kg	952원/kg
도매가	779원/kg	1,207원/kg	6,153원/kg	3,544원/kg	2,025원/kg
소매가	N/A	N/A	N/A	3,808원/개	N/A

주1) 도매가는 2018년 월별 평균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연평균 가격을 산정하였으며, 단감과 감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 감 평균가격으로 같음함

주2) 단감 도매가는 과 크기를 고려하지 않은 kg당 평균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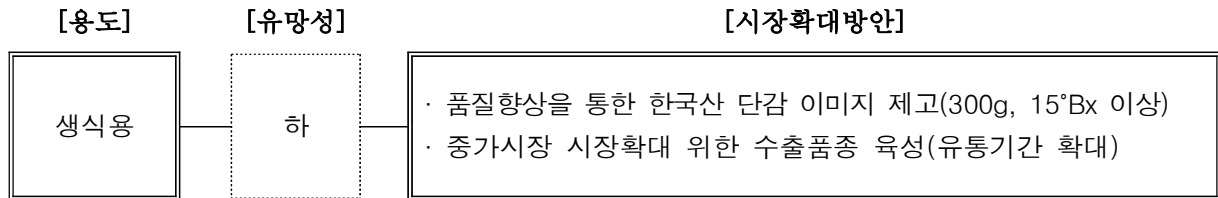
주2) 뉴질랜드산 소매가는 현지조사(2019.07) 시점 소매유통채널 평균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함

주3) 환율기준 : 1USD=1,190.0원, 1THB=38.94원

* 출처 : ITC Trademap(www.trademap.org), 딸랏따이 도매시장 가격정보 페이지(talaadthai.com)

IV. 시장확대방안

1. 품목유망성



□ 태국에서 단감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이며, 저가 시장과 프리미엄 시장으로 양분화 되어 있음

- 중국산과 한국산 단감은 모두 중저가 시장에 속해 있으나, 중국산 감이 인지도 및 가격경쟁력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
 - 중국산 감의 수입단가는 kg당 0.6달러(한화 약 714원)로 한국산 0.8달러(한화 약 952원)/kg 대비 소폭의 가격경쟁력을 보유함
 - 한국산 단감은 중국산 대비 안전성이나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지만, 품질 면에서 중국산 단감과 큰 차별화를 이루지 못하고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 오히려 단감 산지에 대한 인지도 측면에서는 중국산 단감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산 단감은 유통기간이 길고 한국산 단감과 품질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 오히려 확실한 저가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 태국 단감 시장에서 프리미엄으로 인식되는 상품은 일본산과 뉴질랜드산으로 고급 단감으로 유통되고 있음
 - 일본산 단감의 수입단가는 kg당 6.0달러(한화 약 7,140원), 뉴질랜드산 수입단가는 kg당 5.5달러(한화 약 6,545원)로 한국산 대비 7~8배 높은 가격에 유통됨
 - 뉴질랜드산 단감은 과가 크고 외형이 수려하며 당도가 높아 맛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며, 일본산 단감은 뉴질랜드산 단감과 품질이 유사하나 식감이 더욱 부드러운 것으로 나타남
- 한국산 단감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실정이며, 단감 자체가 소비에 생소한 품목으로 수출확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평가됨
 - 한국산 단감은 중국산과 일본산 단감 중간 단계(middle level)에 위치하여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중국산과 품질을 내세운 일본산 사이에서 적절한 포지셔닝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3개국의 수입시기는 10~12월에 집중되어 있는데, 경쟁국 대비 차별성이 없는 한국산 단감의 포지셔닝이 요구됨

〈태국 단감 원산지별 주요 유통시기〉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태국산												
한국산												
중국산												
일본산												
뉴질랜드산												

• 중국산 대비 안전성 확보 • 뉴질랜드산 대비 가격경쟁력 보유	• 낮은 인지도 • 수출기간 10~12월 한정
• 주요 소비품종인 부유 동일품종 • 뉴질랜드산과 수입시기 반대	• 단감 자체 낮은 인지도 및 소비량 • 한국산 수입물량 지속적 하락 • 중국산 가격경쟁력/일본산 및 뉴질랜드산 품질경쟁력으로 인한 한국산 포지셔닝 시급

2. 시장확대방안

□ 수출용 상품 선별 및 품질기준 향상을 통해 한국산 단감의 이미지 개선 필요

- 현재 태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단감은 내수(국내) 수요를 충당한 이후 여분의 물량이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기준 한국의 단감 평균 도매가격은 kg당 3,155원으로, 對태국 수출단가 1.6달러(한화 약 1,904원) 대비 높은 수준을 보임
 - 이에 수출용 상품을 선별하지 않고 내수 소비 후 여분의 물량을 수출하였기 때문에 상품성이 떨어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됨
- 태국 내 한국산 단감의 이미지 개선 및 시장확대를 위해서는 현지에서 고품질로 인정받고 있는 일본산과 뉴질랜드산의 품질기준을 벤치마킹하여 수출용 상품의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함

- 뉴질랜드산과 일본산 단감은 대과 위주로 유통되며, 선택과 과형이 고르고 수려함
 - 뉴질랜드산과 일본산 단감은 최소 L사이즈에서 2L 사이즈 이상의 상품이 유통되는데, 한국산 단감은 이보다 소과 위주로 유통됨
 - 뉴질랜드산 단감의 평균 중량은 300g 전후 수준으로, 현지에서 유통되는 단감의 중량은 개당 265g으로 확인됨²²⁾
- 일본산 프리미엄 단감(부유)의 품질기준은 과중 300g 이상, 당도 15~16 ° Bx 이상 수준으로 나타나며, 현지에서 판매 중인 뉴질랜드산 단감(부유)의 평균 당도는 12~14 ° Bx로 한국산 단감 탐 프루츠 기준과 유사한 수준임
- 이에 수출용 상품의 선별 및 품질균등화를 통해 한국산 단감의 이미지를 개선함으로써 고가 시장으로의 진입이 필요함

〈주요 수입국 단감 품질기준 비교〉

원산지	품종	과중	당도
뉴질랜드산	부유	평균 300g	12~14 ° Bx 이상
일본산	부유	300g 이상	15~16 ° Bx 이상
한국산(탐프루츠)	부유	380±30g	14.5 ° Bx 이상

□ 미들레벨(중가시장) 시장선점을 위한 수출품종 육성

- 태국의 중가시장에서 확실한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 수요에 부합하는 수출 품종 육성이 요구됨
- 태국 소비자들은 씨가 없고 단단한 식감의 대과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니즈에 부합하는 수출품종을 개발 및 육성하여 현재 한국산이 위치한 중가시장의 비중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한국산 단감은 10월부터 익년 1월까지 유통되지만, 사실상 11월에 가장 많은 물량이 집중되어 있어 유통기간을 늘릴 수 있는 품종으로 육성되어야 함
- 유통기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는데, 뉴질랜드산 단감의 유통기한은 약 30일 가량인데 비해 한국산은 15일 정도로 한정되어 있음
 - 이에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도록 보관성이 좋은 품종을 선정하여 주력 수출품목으로 육성해야 함

²²⁾ 태국 현지조사 결과(2019.07)

시 장 확 대 방 안	품질	• 품질향상으로 한국산 고품질 이미지 제고([과중] 300g, [당도] 15° Bx 이상) • 씨 없고 단단한 대과 등 수출품종 육성으로 중가시장 확대 • 수출용 상품 선별 및 공급, 품질기준 준수를 통한 균일한 품질 유지
	가격	• 일본산 및 뉴질랜드산 대비 가격경쟁력 강조한 프리미엄 시장 확대
	유통	• 저장성 확대로 선도 및 품질 유지(뉴질랜드산 최대 30일/한국산 15일에 불과) • 10~1월 외 유통 가능한 품종 육성 필요
	홍보·마케팅	• 안정적이고 일정한 물량 공급을 통한 한국산 인지도 제고 • 중가시장 내 포지셔닝 필요